

OECD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 참가 결과 보고

2012. 10.



경 제 통 계 국
지역소득통계팀

목 차

I. 개 요	1
II. 의 제	1
III. 논의내용	2
IV. 특기사항	16
V. 시 사 점	16
VI. 차기회의	17

I. 회의개요

□ 회의명

- 국민계정 작업반회의(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, WPNA)

※ 거시지표에 금융부문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금융통계 작업반회의(Working Party on Financial Statistics, WPFS)와 연계 개최되고 있음

□ 목적

- 국민계정 추계 및 2008 SNA 이행과 관련한 각국의 현안들을 공론화 하고, 문제점 및 대안을 공유함으로써 통계상의 국가간 간극 해소

□ 기간: 2012.10.1. ~ 10.5.(2일차(10.2.) 부터 참석)

□ 참가자: 심상옥 (지역소득통계팀)

※ 한국은행: 김영환 과장 (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국민소득총괄팀)

□ 기대효과

- 각국의 추계.연구사례 및 현안의 공유를 통해 지역계정 추계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 도출

II. 의제

□ 10.2.(2일차): WPFS

- 금융통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현황

□ 10.3.(3일차): WPFS-WPNA 공동의제

- 2008 SNA 이행현황
- 지주회사.본사.특수목적기구의 처리
- 금융파생상품 및 종업원 스톡옵션 처리
- 금융중개서비스수수료(FISIM)의 측정

□ 10.4.(4일차): WPNA

- 토지 및 비생산자산의 측정
- 자본서비스
- 다국생산체제(Global production)

□ 10.5.(5일차): WPNA

- 비관측경제(Non-observed economy)
- 계절조정
- 실질소득

Ⅲ. 논의내용

가. 금융통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현황

□ OECD Financial Dashboard의 활용 및 개선에 관한 제언

- 회원국들로부터 35종의 금융지표를 수집하여 2012.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던 Financial Dashboard의 활용방법 및 확충안에 대한 사무국의 제안 논의
 - 이들 지표들은 통계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, 지표 중 일부가 OECD에서 발간하는 연간간행물인 'OECD Factbook'과 'National Accounts at a Glance'에 수록
 - 통계국은 최근 동향에 대한 주기적인 파악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목적으로 웹페이지를 재구성(Financial Statistics Page)
- 향후 통계국은 금융계정 및 금융B/S, 가계자산 및 부채, 기관투자자 자산 등의 자료로 얻어지는 신규 지표의 확충을 통해 Financial Dashboard의 질적, 양적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임

□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에 관한 OECD 자료의 일관성 검토

- 보험 및 연금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이들과 관련된 통계의 중요성도 증가
- 이에 따라 OECD 통계DB에 수록된 각나라의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상의 보험회사와 연금기금 자료를 상호 비교하고 그 차이를 규명(34개 국가의 자료 조사)
 - (보험회사 자료) 조사 국가의 절반이 GDP의 5% 이하의 차이를 보였고, 7개국에서 10% 이상의 자료 차이가 나타남
 - . 금융통계와 국민계정간의 차이는 '주식 및 기타자산'과 '주식이외의 유가증권' 항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
 - (연금기금 자료) 조사에 포함된 29개국(5개국은 자료의 미확보로 제외) 중 24개국에서는 차이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, 호주, 덴마크, 일본, 독일, 핀란드 등 5개국에서는 큰 차이를 보임
 - . 금융통계와 국민계정간의 상이한 포괄범위로 차이 발생
- 이러한 차이는 양 통계가 각기 다른 기관에서 작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, 담당기관의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무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망

□ IMF, World Bank, OECD의 공공부채 데이터 공동수집 추진

- 2010년 World Bank에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공부문부채에 대한 자료수집을 추진한 바 있음
- 2012년 G20 Data Gaps Initiative의 시행으로 OECD, World Bank, IMF가 공동으로 선진국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부채의 DB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
 - 후속조치로 회원국들로부터 대해 분기별로 공공부문부채 자료를 제공 받아, 27개국에서 2012.1/4분기까지의 자료를 수집
 - 이들 자료는 OECD 통계DB(OECD.Stat)와 World Bank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
- 사무국은 응답부담 완화를 위해 유럽국가들의 자료는 Eurostat을 통해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

□ 기금흐름계정을 사용한 공공부채 자료 수집(일본)

- 정부부채통계의 속보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관련기관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금흐름계정(Flow of Funds Accounts) 자료를 사용한 일본의 공공부채 작성방법을 소개
- 기금흐름계정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분산된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해야 하고, 공공·민간부분의 분류기준을 2008 SNA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음
- 그러나 기금흐름계정이 분기자료로 속보성을 충족시켜주고, 포괄범위가 넓으며, 은행 보고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작성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채 작성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
 - IMF 통계국에서도 일반정부부채 자료 제공시 기금흐름계정 자료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바 있음(2010.11.)

□ 증권DB를 이용한 금융계정 및 B/S 추계(칠레)

- 칠레의 금융계정 및 B/S 추계에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집계하고 있는 Chilean Custody Service* DB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 소개
 - * Chilean Custody Service: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보관, 관리, 가격지불, 현금화 등을 수행하는 기관
 - DB는 증권의 발행인, 만기, 명목가격 및 보유자에 관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으며,
 - 금융계정 추계 뿐 아니라, 경제분석 및 금융안정시책 수립을 뒷받침할 주요 정보로 활용 가능

□ 주요협력국의 금융계정

- OECD의 주요협력국(Key partner)인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남아공으로부터의 금융계정 관련 자료수집 현황 보고
 - (브라질) 1993 SNA에 의거 금융상품 및 부문 분류가 가능하며 별도의 금융계정 및 금융B/S 자료(2005~2009)를 OECD에 제공한 바 있음
 - (중국.인도.인도네시아.남아공) 금융상품 또는 부문 분류가 1993 SNA와 부합하지 않는 국가로, 이들 국가들에게는 1993 SNA와 현행 분류의 비교표를 작성하여 OECD에 제공토록 요청
- 브라질에게는 상호연계된 금융계정 및 금융B/S 자료를 작성토록 요청하고, 기타국가들에게는 1993 SNA와 현행분류 비교표 및 OECD의 금융계정 조사표의 작성을 요청할 계획

나. 2008 SNA 이행 현황

□ OECD 국가의 2008 SNA 이행상황에 관한 설문 결과 보고

- 2011.11월 각국의 2008 SNA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WPFS 및 WPNA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
 - 설문내용은 새로운 개정안의 이행에 수반되는 실무적, 개념적 문제에 대한 것이며, 32개국이 설문에 응답
- 응답결과 회원국 마다 개정안의 이행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남
 - 회원국의 약 절반이 이행에 따르는 추계방법의 변경 및 그 영향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였으며, 나머지 절반은 신 SNA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한 상태
 - 2008 SNA를 이행하였거나, 이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나라의 1/3이 선진국
- ※ 나라별 이행현황: 호주(2009.9.), 캐나다(2012.12.), 이스라엘, 멕시코(2013), EU국가, 한국, 노르웨이 등(2014), 터키(2015)
- 이행과정에서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는 기초자료의 부족, 적절한 추계방법의 부재, 새로운 분류나 정의의 불명확성 등으로 나타남
- 향후 국제기구의 지침개발 및 지원, 교육 및 포럼 등을 통해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론

□ 한국의 2008 SNA 이행상황

- 국민계정의 2008 SNA 이행현황, 주요현안,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
 - 2010년 2008 SNA 번역 및 기구재편을 통해 개정안 이행에 대한 사전준비
 - 2011년 통계청과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고, 현재까지 연구, 시산, 비교검토 등을 수행
- 주요 현안문제는 지주회사나 본사의 처리, 무기시스템.가공무역. R&D의 추계 등임
 - 2008 SNA에 의거한 R&D의 시험추계 결과 명목 GDP가 4.0% 상승하였고, 무기시스템의 경우 정부 부가가치를 6억달러 증가 시킴
- 2013년까지 연구 및 시산, 국제세미나 개최, 자료의 소급적용 등을 추진하고 2014년 개정안에 의한 자료 발표 예정

다. 지주회사.본사.특수목적기구의 처리

□ 지주회사와 특수목적기구의 식별(포르투갈)

- 2008 SNA의 공표로 ESA(European System of Accounts)*도 개정을 거치면서 지주회사 및 특수목적기구의 처리방식에도 변화

* ESA: 유럽국가들을 위한 국민계정 편제안으로 2008 SNA에 따라 ESA 1995도 ESA 2010으로 개편

	ESA 1995	ESA 2010
지주회사	금융지주회사: 금융법인 비금융지주회사: 비금융법인	금융법인
특수목적기구	비금융법인 또는 금융법인	좌동

- 이에 따라 이들의 제도부문을 식별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 필요
 - (특수목적기구) 모회사가 거주자인지 여부,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, 종사자 규모 등에 따라 이를 특수목적기구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
 - (지주회사) 사업체 신고자료에서 지주회사로 분류된 사업체를 모두 금융법인부문으로 분류하는 방법 대신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만 금융법인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채택
 - . 서비스의 생산 여부, 종사자 규모, 금융자산비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법인으로 분류
- 향후 이러한 식별방식과 산업분류와의 불일치 조정, 사업체 신고 자료의 사용확대 등에 대한 검토 필요

□ 특수목적기구의 분류방식(네덜란드)

- 2008 SNA에서 지주회사와 특수목적기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주회사로 알려진 다수의 업체가 특수목적기구로 나타남
 - 이에 따라 특수목적기구를 지주회사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분류체계를 도입
- 분류과정은 2단계로서 첫 번째 단계에서 특수목적기구인지 여부를 결정하고, 두 번째 단계에서 금융법인인지 여부를 결정
 - (1단계) 매출규모, 금융자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특수목적기구 여부를 결정
 - (2단계) 경영관리 활동 전개 여부, 모회사가 금융법인인지 여부, 재화의 생산 여부로 금융법인인지 비금융법인인지 판단
- 이러한 분류방식의 도입으로 금융부문의 산출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

□ 새로운 국제기준에 의한 지주회사의 처리

- 2008 SNA에 나타난 본사와 지주회사의 처리방법으로 금융 및 비금융부문의 지표에 변화 발생 예상
 - 이에 따라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분류지침을 마련하여 이러한 변화로 인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
- 여러나라에서 지주회사와 본사의 구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분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기관과 사업체등록기관과의 협조 필요
- 명확한 지침의 마련을 위해 Eurostat과 유럽중앙은행이 T/F 결성을 제안하였으며,
 - 제안이 수락되면 Eurostat의 주관하에 T/F가 조직될 예정

□ 지주회사.본사.특수목적기구와 관련된 현안 및 향후 추진방향

- 2011 OECD 워크숍의 건의사항, OECD 설문조사결과, 전문가그룹의 요청에 따라 지주회사, 본사, 특수목적기구의 분류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적용시 수반될 문제를 파악하여,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집할 필요
- 이를 위해 국가, 전문가, 통계기관들간의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수렴할 수 있는 T/F의 조직이 바람직
- T/F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임
 - 지주회사와 본사의 추가적인 분류기준 마련
 - 특수목적기구의 유형 및 분류기준 설정

- 사업체등록 등 기초자료에서의 지주회사, 본사, 특수목적기구 처리방안 권고
- 이들의 거래항목의 측정방법에 대한 권고

라. 금융파생상품 및 종업원 스톡옵션 처리

□ 금융파생상품 및 종업원 스톡옵션에 관한 OECD 설문조사 결과

- OECD에서 각국의 국민계정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금융파생상품의 추계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기초자료의 부족, 자료원의 일관성 부재, 자료의 포괄성 제약 등을 꼽고 있음
 - 스톡옵션에 관한 기초자료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나, 스톡옵션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추계에 대한 심각성은 덜한 편임
- 추계방법에 있어서도 가격평가방식, 거래방식, 거래가격 책정방식 (총액, 순액)의 차이에 어떤 측정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
- 가격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일본의 스톡옵션 추계방침에 대해서 소개
 - 주가지수 및 옵션가격책정모델을 활용하여 스톡옵션의 시장가격을 계산하고, 이를 통해 시장가격과 장부가격과의 비율을 계산한 후, 이 비율을 장부가격의 총액에 곱하여 스톡옵션의 시장금액 파악
- 아울러 금융파생상품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(risk)으로 인해 이를 온전히 자산으로 파악하는데는 문제가 있고, 이로 인해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

□ 호주의 금융파생상품 통계현황

- 호주의 4개의 자료원을 통해 금융파생상품의 자료를 수집
 - (Survey for International Investment) 분기별로 해외 파생상품 조사
 - (Hedging Survey) 외환선물자산 투자에 쓰이는 외환선물 파생상품 조사
 - (호주증권거래소) 은행 및 증권거래소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파생상품 자산과 부채 파악
 - (Survey of Financial Information) 기타 기관의 파생상품 자산과 부채 파악
- 이들을 통하여 파생상품부분을 추계하며 향후 해외 파생상품 자료 수집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개선계획을 추진할 예정
 - 명목금액 뿐 아니라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수집
 - 상품유형의 세분화
 - 이용자에게 친숙한 통계 작성

마. 금융중개서비스수수료(FISIM)의 측정

□ 주요논점

- FISIM 측정 T/F의 연구로 현재까지 도출된 결과 보고
 - 유동성변환도 금융서비스에 속하며, FISIM이 산출되어야 함
 - 채무불이행 Risk는 FISIM에서 제외
 - 이론상의 기준이자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
- 2012. 4월의 전문가자문그룹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,
 - 負의 FISIM 존재 가능성이나 개념 정립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

□ 기준이자율

- Eurostat의 연구에서 장기이자율과 단기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표준 이자율을 계산하고 이로써 FISIM을 시산
 - 그 결과 여전히 負의 FISIM이 산출되고 급격한 등락을 보이기도 함
- ※ 이에 대해 21개국은 좀더 개선된 결과를 얻은 것으로, 13개국은 반대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
-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내년에 T/F 회의가 있을 예정

□ 기타

- 은행 수입명세서 및 대차대조표를 이용한 남아공의 FISIM 추계방식이 소개됨
- 이스라엘은 각기 다른 기준이자율을 이용한 FISIM의 추계결과 및 미지급이자와 부실채권이 FISIM에 미치는 영향 분석

바. 토지 및 비생산자산의 측정

□ 토지 및 비생산자산측정 T/F 활동

- 토지 및 비생산자산 측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OECD와 Eurostat는 T/F를 조직하여 금년 7월 출범
 - 우선 추진과제로 토지와 그 구성요소들의 추계방법 및 내용연수, 유적, 재고 등의 추계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
- 그 결과로 기초자료 및 추계방법, 이들의 실무적용방법, 각국의 사례 등을 포함한 개략적인 지침 마련
- 또 아래와 같은 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T/F내 팀 조직
 - 추계지침의 구성방법 및 내용의 결정

- 토지의 분류
 - 내용연수에 대한 설문 구성
 - 토지와 구조물의 분리방법
- 각 팀의 연구결과는 추계지침에 반영되며, 추계지침 최종안은 2014.12월 까지 완료할 계획

□ 지적재산생산물에 대한 설문조사

- OECD는 2010년에 지적재산생산물의 측정에 관한 핸드북을 발간한 바 있으나, 내용연수와 감모율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
 - 이러한 이유로 OECD는 지적재산생산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추계사례, 기초자료 활용, 자본스톡 측정방식 등에 대한 보다 개선된 Metadata를 얻고자 하였음
- 설문은 R&D, 광물탐사, 소프트웨어 및 DB, 오락.문학.예술작품, 기타 생산물 등을 다룸
 - 본 설문에 따르면 R&D의 자본화로 국가에 따라 0.3% ~ 3.5% 정도 (평균 1.5%) GDP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
- 한편, R&D 자본화방안 연구에 관해 Eurostat에서 2개의 T/F를 가동하고 있으며, 이들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가 R&D 자본화에 공감하고, 이에 대한 권고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
□ 기타

- R&D의 감가상각모형을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정된 추계값을 산출해낼 수 있는 방안 논의
 - 특허기간, 통계조사, R&D 소유자의 이익 등 각종 기초자료를 기초로 감가상각비 추계모형 도출

사. 자본서비스

□ 자본서비스의 측정방법

- 자본서비스의 측정 및 정의에 대해 논의
 - 자본서비스는 생산에 대한 자본의 기여를 나타내지만 노동이나 중간투입과 달리 생산의 기여분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며,
 - 재고와 같이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달리 취급해야하는 문제도 있음

- 따라서 생산에 기여하는 자산과 그렇지 못한 자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
 - 또, 공사 중인 건물 및 구축물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는 반면 선박이나 대형설비 등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데 대한 문제 지적

아. 다국생산체제(Global production)

□ 다국생산체제에 대한 T/F 활동 경과

- 2008 SNA 및 BMP6에 따라 여러 나라에 걸친 생산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, 지침에 반영토록 하고 중요성에 따라 순위를 부여
 - 1순위
 - . 다국생산방식의 유형화
 - . 생산물의 경제적 소유자의 결정
 - . 지적재산생산물의 이전
 - . 다국적 기업 관련 문제
 - . 국제상품교역의 기록
 - . 해외 생산의 기록
 - . 국제상품교역의 기록
 - 2순위
 - . 임가공 서비스
 - . 대규모 복합생산단위의 측정
 - . 무역의 부가가치
 - . 가격 및 물량 측정
- 1순위 주제 중 4개는 작성 완료되어 검토 중이며, 나머지 1순위 주제 들은 10월까지, 2순위 주제들은 내년 3월 이전까지 초안 완료 예정
 - 최종 보고안은 2014년 완료 예정

□ 무설비제조업(Factoryless manufacturing)의 측정

- 무설비제조업자의 특징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Outsourcing 하고,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, 노동, 원료를 관리하며,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 및 디자인을 소유하는 것임
 - 또한 생산과정에서 나온 최종생산물을 소유·판매할 권리도 가짐

- 이 경우 제조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서비스 수수료를 산출로 파악하게 되고 무설비제조업자는 상품판매액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산출로 파악하게 됨
 - 해외의 제조서비스를 거친 생산물을 무설비제조업자가 판매하는 경우는 국내출하에 해당하며, 정확한 분류를 위해 이러한 흐름이 정확하게 포착되어야 함
- 이러한 비전통적인 방식의 생산에 대한 측정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,
 - 무설비제조업자의 분류방법에 대해서, 그리고 이들을 제조업에 분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향후 고찰 필요

□ 다국적기업활동의 포착(아일랜드)

- 다국생산체제가 일반화되면서 가공·중계무역이 경제활동에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
 -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실제 생산자와 소유자가 다른 곳에 위치하면서 생산자는 공정의 일부에만 관여하게 되고 다국적기업은 생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할 수 있음
- 다국적 공급망(Global supply chains)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, 실제 생산자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일 수도, 계약에 의한 임가공 제조업자일 수도 있음
-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통계자료 수집을 위해 아일랜드 통계청은 2009년부터 Large Cases Unit을 가동
 - 이러한 자료를 통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활동을 구분하고, 가공 및 중계무역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향후 숙제도 남음

□ 부가가치 기준의 교역량

- 수출 드라이브 정책 수립이나 수출경쟁력의 파악 시 교역총액은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한계
 - 교역상의 현안에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교역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총량의 Flow를 과정별로 분해하여야 함
- 이러한 Flow의 분석을 위해 OECD는 각국의 I-O Table을 이용하여 58개국을 포괄하는 I-O Table을 작성하고,
 - WTO와 공동으로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교역을 추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

- 그러나 부가가치로 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초데이터의 질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
 - 이를 위해 OECD는 10월말 사업체 및 교역통계 연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,
 - I-O Table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국제기구와 협력망 구축

□ 기타

- 노르웨이의 다국생산기업의 자료수집 사례
 - 사업체조사에서 해외생산량, 해외임가공 서비스 등을 파악하고, 조사 대상업체 중 해외생산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Microdata 분석
 - 본 자료의 해외판매액과 무역통계자료와 일치하지 않고, 가공·중계 무역, 해외자회사의 생산 간의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
 - 해외판매 사업체의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한 사업체등록자료 활용 등의 방안 필요
- 멕시코의 다국생산 현황
 - 다국생산 관련자료는 월간산업통계, 경제총조사, 무역통계 등을 통해 수집
 - 수집된 자료들의 연계·조정 등을 통해 다국생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, Global value chain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가공
 - 이러한 다국생산이 정확히 포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국생산의 특성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
 - 그리고 기존자료의 충분한 활용을 통해 응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함
 - 또한 이러한 경제현상의 측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의 수립 필요

자. 비관측경제(Non-observed economy)

□ 비관측경제에 대한 OECD 설문조사 결과

- 비관측경제의 유형별, 산업별 부문별 규모의 파악과 이들 측정방법의 이해를 위해 설문조사 실시
 - 19개국에서 응답하였으나, 설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, 부분 응답 및 자료보안성으로 인해 상호 비교 어려움

- 본 설문결과로 비관측경제의 추세는 비교적 안정적이고, 나라마다 개인부문과 비금융부문과의 구분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 -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지속될 것이며, 특히 이들의 부가가치 측정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

□ 기타

- 멕시코의 비공식경제 추계결과
 - 비공식경제의 규모 파악 및 비공식부문의 생산계정 작성을 위한 추계방법의 연구
 - 분류는 2007년 북미산업분류시스템(NAICS 2007)을 사용하였고, 2008 멕시코의 재화와 서비스 계정, 직업 및 고용조사, 가계수입 및 지출 조사, 사업체조사, 경제총조사 등을 기초자료로 사용
 - 추계결과 2008년 비공식경제는 멕시코 GDP의 10.5%를 차지
 - 본 결과는 상당부분 센서스, 조사, 행정자료에 의존하였으며, 비공식 경제 부문의 명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아직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
- 네덜란드의 불법경제
 - 판매와 소유가 금지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추계대상으로 정의 (예: 불법약물, 장물처리, 불법도박, 불법복제, 밀수 등)
 - 기초자료는 약물의 경우 검거건수, 금액, 사용자수, 약물의 순도 등을 사용하였고, 검거율, 해외반출률, 1인당 평균사용량 등을 가정하여 추계
 - 추계결과 2008년 네덜란드의 불법경제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국민총소득의 0.6%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고, 이중 1/3은 국민총소득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

차. 계절조정

□ 경제적 격변기의 계절조정방식

- 2008.4/4분기~2009.1/4분기의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경제 변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절조정방법에 대해 논의
 - 미국의 경우 기존의 단변량에 의한 계절조정(Univariate Seasonal Adjustment) 대신 다수의 시계열로부터 공통추세를 추출하는 다변량 계절조정(Multivariate Seasonal Adjustment)를 사용하는 것이 급격한 경기변동을 용이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그러나 기초자료와 국민계정간의 계절조정방식 통일, 미국과 같은 분산형 시스템에서 작성기관 간의 계절조정방법 통일 등은 향후 과제로 남음

○ 네덜란드에서도 경제적 격변기의 계절패턴의 설정에 대해서 발표

-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면서, 격변의 연속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모니터링, 이상치 여부의 추가 검증 등을 병행하여 향후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발표

□ 노르웨이의 계절조정방식(직접법 vs. 간접법)

○ 2011년 개편시부터 현재 분기국민계정의 계절조정을 위해 간접법 사용

- 세분지표의 조정 후 이를 합하여 총량을 산정하고, 총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산출과 중간투입의 차이로 계산하는 대신 부가가치에 대해 직접 조정

○ 1978년부터 기준년까지는 직접법을 사용하여 직접법과 간접법을 혼용

- 불변가격은 연쇄방식으로 산출하고 1978년부터 기준년까지의 자료는 기존의 계절요인을 사용함

○ 변경결과 간접법의 적용이 추세에 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총량에 대한 하위지표의 영향분석이 보다 용이해짐

카. 실질소득

□ 실질소득 처리의 문제

○ 이익잉여금 처리의 일관성 결여가 실질소득의 총액에 영향 분석미침

- SNA에서 이익잉여금은 투자자의 소득으로 귀속되도록 한 반면, 해외에서의 투자로 인한 이익잉여금은 해외의 소득으로 기재하지 않고, 국내기업의 순저축으로 기록하기 때문

- 호주에서 이 문제의 분석을 위해 국내기업의 순저축을 투자부문으로 배분하고,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·시산하여 기존 자료와 비교

- 비교 결과 양자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

. 해외에 귀속된 소득이 경미하고,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나 배당금은 본원소득의 지급으로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

○ 이밖에 재투자수익의 범위를 국경을 사이에 둔 회사간의 소유문제로 국한한 현행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

- 재투자수익의 적용범위를 국내기업 간의 투자, 정부의 공기업투자로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

타. 기타 논의 사항

□ 사무국간 전문가 그룹(ISWGNA)의 활동경과 보고

- 배출권(Emission Permits)의 기록에 대한 지침을 완료하여 UN 승인
- 전문가자문단(AEG) 회의 개최(2012.4. 뉴욕)
 - 자문단의 권한, 작업추진 프로그램, 현안연구과제, 훈련교재 개발, 가구부문의 현안에 대해 논의
- 2008 SNA의 이행과 관련한 추가 작업 추진
 - FISIM, R&D, 지주회사, 특수목적기구, 본사의 분류 등
- 금융부문의 생산, 플로우 및 스톡에 관한 핸드북의 편집(2013년 완료)
- 다국생산, 토지 및 비금융자산 측정에 관한 지침 작성(2014년 완료)

□ 부문자료 확충 및 자료의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한 Data Template 설정

- 부문별 계정과 대차대조표의 필요항목 및 형식을 설정하여 각 나라로 하여금 통계작성 시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
 - 경상 및 자본계정, 금융자산·부채의 스톡 및 거래, 비금융자산스톡 등을 분기로 작성하도록 권고

□ OECD 통계위원회의 2013~14 추진사업의 중점 현안

- 성장의 신동력으로서의 지식기반 자산
- 삶의 질, 소득분배, 녹색성장
- 발전전략, 발전에 대한 측정
- 교역의 새로운 개념 정립(부가가치 기준의 무역)
- 주요협력국(Key partnet)과의 협력

□ 국제기구간 자료공유를 위한 T/F 활동경과

- OECD-Eurostat-유럽중앙은행이 각 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회원국의 응답부담을 완화
 - OECD의 통계자료 수집시 유럽국가의 자료는 Eurostat과 유럽중앙은행을 통해 기수집된 자료를 활용토록 함
 - 업무절차, 수집시기, 자료교환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한 후 금년 12월 기관간에 MOU 체결 예정

IV. 특기사항

□ 경제환경변화의 통계 수용 방식에 대한 관심 증가

- 기존 경제관행과는 다른 방식의 생산 및 소득을 통계로 측정하는 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짐
 - 2008 SNA에서 새로운 방법의 생산(예: 다국생산)이나 소득(예: 스톡옵션)의 통계반영을 위한 지침이 제시되었으나, 지침과 실무 사이의 괴리가 상존하는 것으로 보임

□ 지표의 속보성 제고의 필요성 강조

- 부문별계정의 계절조정방식의 문제나 대안제시를 통해 분기지표작성의 정교성 확보를 강조
- 분기부문별계정의 필수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각국에서 필수 지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권고

□ 비관측경제에 대한 논의

- 현행 국민계정상에서 포착되지 않는 지하경제, 비공식 경제활동 등을 통계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 고조

V. 시사점

□ 계절조정방식의 검토

- 계절조정방식에 대한 논의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의 통계적 수용방식과 연계하여 향후 고찰해 볼 필요
 - 경제적 격변의 영속성, 규칙성, 구조적인 변화인지의 여부에 대한 관측, 적용방식의 판단 등에서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의 정립 필요

□ 수출의 측정방식

-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의 경우, 무역의 총량 보다 이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측정을 통해 수출의 경제에 대한 실질 기여도를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
 - 무역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이들의 통계반영 방법에 대해 검토 필요

□ 2008 SNA 이행의 대비

- R&D, 무기시스템 등 GDP 총량에 영향을 주는 개정안의 이행에 대비하여 기초통계 확충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

□ 비생산자산의 측정

- 자본의 생산에 대한 기여, 자산의 구조의 파악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부응하여 자산의 분류, 측정방법 등의 지속적 연구 필요

VI. 차기회의: 2013.11.4. ~ 11.8.